

■ ■ ■ 사시 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꾸준히 성실하게 걸어가기



곽 여 산

- 1988년 1월 생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법대 재학 중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시계에 합격기를 쓰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월 고시계 잡지를 보면서 합격기에 괜히 제가 다 두근두근 거리고, 수험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움도 많이 얻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혹시 제가 수험생활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합격만을 위하여 달려왔던 수험기간들을 모두 풀어놓는 다는 것이 괜히 저의 개인적 감상에만 빠지게 될 것 같아 시기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II. 시험준비의 시작

저는 처음부터 법학과는 아니었지만 2학년년부터 법학과로 전과를 하면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원칙적인 걸 중시하기도 하고, 법을 처음 배울 당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더라도 배우는 자체가 참 즐거웠던 시기였으며 어차피 출제도 교수님이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해서 대학수업부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 3학년 2학기 까지 7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험에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이때부터 나를 이해를 하기 위해 계속 교과서를 읽고, 판례를 찾아 읽고 했던 것이 이후 수험생활까지 차곡차곡 쌓인 것 같아, 아직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수업에 충실하게 잘 들으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합니다.

III. 1차 준비기간

1. 기출과 판례의 중요성

기출의 중요성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바이고 저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를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첫 번째 1차시험을 보았는데 그 때에는 준비기간도 짧았지만, 가장 큰 패인은 기출문제를 전혀 보지 않았었다는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 여름 다시 일차 준비를 할 때 그 때부터 한 챕터를 마칠 때마다 기출 문제를 풀었고, 지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을 공부의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독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완전히 숙지된 지문은 바로 넘기고, 숙지되지 않은 지문은 여러 번 암기와 또 이해를 위한 고민, 관련 판례를 찾아서 읽어보기, 하는 등으로 최대한 기출에서 문제된 쟁점은 완전히 숙지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 역시 저로서는 객관식판례집(민법, 형법)을 보든 줄글로만 된 판례집(헌법)을 보든 하나를 정하여 역시 기본적으로 그 결론을 암기하고 그 내용파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많이 어려워 한 형법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헷갈리는 판례가 있으면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전문을 읽는 등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것은 2009년에 첫 1차를 준비하면서 인강으로 진도를 들은 외에는 2010년 준비에는 학원수업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택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무작정 회독수만을 늘리기 보다는 이해를 위한 판례공부도 문제의 지문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선택과목

선택과목(국제거래법)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12월부터 지하철로 학교까지 통학하는 길(전철 20분 정도)에 거의 매일 보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문제도 꾸준히 풀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한다거나 가볍게 보기에는 그 양도 그렇고,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본인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12월 초 내지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국제거래법이 다른 과목에 의해 상대적으로 양이 적긴 하지만 시험 당일 기계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암기 단계에 끝나기에는 어려운 양이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금은 빠른 듯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진모 후 기간 및 시험당일

진모 후에 어떻게 공부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같은 경우 2010년 준비에는 진모를 따로 하진 않았고 비슷하게 나름의 진도를 따라갔습니다.(그 당시 했던 건 민법과 형법은 기본서 읽기(지원림저 민법강의, 김성돈저 형법교과서) 및 객관식판례집(권순한저, 신호진저), 기출(이태섭저, 이인규저)을 풀었고, 헌법은 기본서 읽기(차강진저 헌법강의), 판례집 읽기(정희철저), 차강진 10년기출을 그 전부터 계속 돌리던 것을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제 부족한

공부량 대비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 나름대로 과목당 일수를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총 각 6회독은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는 물론 하루에 과목들이 겹쳐지기도 하였고요.

시험 당일에는 지하철을 타고 시험장을 가면서 선택과목만 보았고, 기본서들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형법 - 집행유예요건등, 민법 - 친상법등, 헌법-부속법령등) 만을 정리한 종이만을 가져갔으나 사실 쉬는 시간도 금방이고 다 읽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IV. 2차시험 준비 기간 및 시험당일

1. 진도의 중요성

제가 민사소송법과 민법을 박승수 변호사께 수업을 들었는데 민소법 1순환 초반에, 1순환부터 마지막까지 시험등 그 진도만 놓치지 않고 복습하며 따라가면 합격률이 80%로 올라간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다! 싶었고 2차가 너무 막막하기만 했는데 성실하게 진도를 맞춰가는 것을 공부의 큰 방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비는 2009년 봄에 인강으로 후사법을 들었고, 2010년 봄에는 혼자 후사법 교과서를 다시 복습하였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1차시험에서 너무 많은 진을 뺐 탓이었고, 초시 때는 모든 과목이 거의 백지이다시피 했습니다. 초시 이후 여름부터 1순환, 2순환(강평도 들음), 3순환(시험만 칩)을 행정법 시험 한 개 빼고는 다 시험치고 복습하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때 중요한건 그냥 진도를 따라가면서 매일 매일 복습 - 수업 - 복습 - 시험, 수업 - 복습 이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이런 하루하루가 다 도전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 때 시험 점수도 3순환에서 조차 뒤에서 2~3등 하기도 하였으나 대세에 지장 없다고 혼자 생각하고 점수는 내일 공부를 위한 자극제 정도로만 삼았습니다. 아 그리고 순환마다 기삼을 하게 될 시기면 그 순환의 후사법 모의고사답지를 통학하면서(전철 10분) 읽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순환 이후 에는 다이어리상 5월 16일부터 시험 전날 전까지 총 2회독이 나오게 그 동안의 제 공부 스타일과 시간등을 고려하여 7과목의 배당일수를 자체적으로 나눠 그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했습니다.(제 예시를 드리자면 4(민)-3(형)-3(형소)-4(민소)-4(상법)-4(행정)-3(헌법), 2-1-1-2-2-2-1)

그러나 진도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소화능력 이상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잡아서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을 놓친다거나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든 과목의 사례집을 다 보지 못했고 다만 해당 챕터의 중요 사례만은 꼭 풀지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반복하면서 조금은 스킵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모의고사에만 열심히 참여하셔도 중요한 사례는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례집의 진도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도가 중요한 건 성실히 공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나친 강박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엔 그 전에 다 보면 무조건 붙는다는 말을 믿고 다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후 6시정도부터 보면 12시까지 내지 민법 같은 경우 3시정도까지 보고 자고 시험쳤습니다. 그런데 첫 날 첫 시간 헌법에서 3순환 이후 쓰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헌법에서 제2문 20점을 통으로 날린 후 점심시간에 밥도 안 넘어가고 창밖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저 같은 불상사가 있으시면 안되지만 있으시더라도 포기만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법부터 목표는 무조건 시간 내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글씨는 크게 쓰고, 시간 내 다 쓰자.' 또 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채점자를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시계 2월호나 3월호를 보면 교수님들 채점평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쓰면 그래도 다 봐주시기 위해 노력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일단 내 글을 봐줄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최선이고 긍정적임을 확인하고 나니 그 때 그 글들을 읽은 후부터는 답안지 쓰는 제 마음이 좀 편해졌고, 시험장에서 '다 읽어주시겠지, 다 받아 주시겠지, 이해하고 쓴다는 것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게 써야지' 등의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2. 체력관리의 중요성

1차 때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시험 후에는 체력이 거의 방전된 상태였습니

다. 1년을 더 버티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우연히 요가를 시작했는데 요가가 저에게 잘 맞아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다가서 몸도 풀고, 마음도 요가 특유의 경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마인드를 (잘 되진 않지만) 마음에 되새기며 안정을 찾기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맞는 운동을 잠깐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일상의 활력도 되고, 끝까지 공부량을 (늘리거나) 유지해 가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V. 시험 후 3차 면접

3차 면접 준비를 열심히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 저는 첫날 오전에 면접을 봤고, 단체 면접에서는 50분정도 토론을 하였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문제였는데, 다른 조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사안의 위헌여부가 문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는 토론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해하지 말고 타이밍을 잘 봐서 중간 중간에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설명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상대의견을 반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면접에서는 법학지식을 묻느냐가 가장 궁금하신텐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법지식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 약간 복복복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혹시 모르니 2차과목 기본서들을 통독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 같은 경우는 다들 거의 비슷했습니다. 검은 색 정장, 하얀

색 내지 (저 같은 경우) 열은 분홍색 블라우스 였었습니다.

VI. 나오며

2차시험 내내 많은 비가 내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6월 이후 7월은 내내 울었고, 8월부터 다시 정신줄을 조금씩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합격자 발표 날이 됐을 때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믿겨지지 않을만큼요. 그리고 연수원생활을 하는 지금도 믿기지 않고 꿈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행운이 함께 하게 되어 누구에게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지지자가 되 주셨던 어머니 외에도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씩 나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베풀며, 더불어 살며 법조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 중 하나는 제 안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었고 어느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자, 난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다짐이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꿈을 먹고 산 기분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면을 빌려주신 고시계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